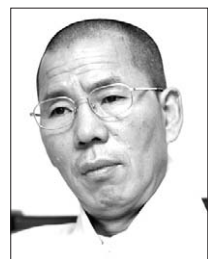


한 때 TV를 '바보상자'라고 한 적이 있었다. TV가 개인의 주관적 사고를 방해하고 사회의 정서를 '소매' 뚫듯 뚫고 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TV를 시청하느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어른이나 TV에서 흘러나오는 유행어를 뜻도 모르면서 입에 달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다. 코미디나 연속극이 국민정서를 이끌고 가는 힘은 놀랄 만하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 TV가 기여하는 순기능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정보 전달과 사회 현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TV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엄청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그 인기를 조금씩 빼기고 있지만, TV는 여전히 파급력이 큰 매체다.

최근 방송위원회가 TV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 방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당연한 일이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TV가 갖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중간광고 같은 중대한 결정은 공의를 모으고 수차례 토론과 시범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강조하며 허용 쪽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으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들은 이 결정이 바보상자의 진화라고 보기보다 하나의



불자 세상보기

법 등
조계종 호계원장 · 경실련 공동대표

‘바보상자’의 진화 혹은 폭력

폭력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시행되는 일이라는 이유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 한 시간당 광고 허용 시간은 18분이나 된다. 일본의 민간방송도 총 방송 시간의 18%가 광고시간이다. 유럽은 좀 적은 편이어서 독일이나 영국은 시간당 12분 아일랜드는 10분 정도다. 이런 비율로 배정된 광고가 프로그램 중간에 특목 뛰어나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여론조사 통계에 의하면 시청자들은 이 같은 중간광고에 대해 넋더리를 치고 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중간광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 37%는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옮긴다고 답했다. 이는 "중간광고 삽입이 프로그램에 몰두하지 못하게 한다"는 일반 시청자들의 주장과 부합된다.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이 10분 내지 15분 이상 앉아 있거나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과 TV의 중간광고가 어떤 개인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도 다 하는 일'이니 우리도 하자'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허용 결정은 공중과 방송의 살림살이를 더 부풀려 주는

데 기여하는 것 말고는 실익이 있는 결정이 못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점은 특히 심각한 일이다.

생각해 보라. 시청자에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권리가 있다면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간에 불속 광고가 튀어나와 시청의 맥을 끊어 버릴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방영 형태도 변하는데 맞춰서 프로그램의 제작 형태도 바뀔 것이다. 광고를 의식한 프로그램의 제작이라면 그 작품성에 대한 기대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가 짧게 끊어지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판을 치면 국민 정서가 은근히 단발성으로 변해갈 것이다. '은근과 끈기'를 자랑하는 한민족의 정신이 10분 내지 15분 단위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광고 시장의 활성화나 공중과 방송사의 재정 확대가 국민의 정신세계를 불안정하게 이끌어 가는 것을 허용할 만치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시청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같은 일차원적인 해법 말고,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자세야말로 공익을 대변하는 방송의 대국민 서비스가 아닐까?

불자의 눈

‘10·27 특별법’ 꼭 풀어야 할 과제

지난 10월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27 법난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밝힌바 있다. 이 발표의 핵심 사안은 두 가지.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전대미문의 법난을 일으킨 원인이 조계종의 통무원장인 월주 스님에 대한 반감이었다는 것과 법난의 전후 과정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조계종은 11월 6일 총무원 총무회의에서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종회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10·27 법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조계종의 요구에 대해 주어진 정동영 대통령직수신당 후보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11월 6일 지관 스님을 예방한 정 후보가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조계종의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너무 급박하게 일을 풀아가서는 안 된다.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한 때의 분위기나 여론몰이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시간에 쫓기거나 일부 의견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포괄적인 조사와 보상이 담보되는 법을 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10·27 법난의 진상과 특별법을 통한 후속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일은 중단 차원에서 급하게 진행해야 할 일이다. 대선 정국에 휩쓸린 정치권이 얼마나 귀 기울여 줄지 자못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후원에 동참하자

중앙승가대가 11월 20일 후원회를 발족한다. 중앙승가대의 교육 환경 개선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원확충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 학인스님들의 등록금 지원과 연구 수행품토 조성, 교원회보 및 연구활동 보조, 국내외 학술교류 활동 보조, 교직원 재교육, 필요시설 건축 등에 보태겠다는 것이다. 학인들의 교육 여건은 물론 교수진의 급여와 연구지원 등이 약한 수준이다 보니 인재 불사도 미진하고 결국 좋은 연구 결과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계층 간의 경계가 거의 없다. 스님들도 전통 교육기관에서 내전을 연구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불교학과 현대 제반 학문의 연계 연구도 필요하고 불교의 전통 가치관을 현대사회의 정서와 접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앙승가대가 보다 열린 교육으로 시대를 따라잡는 '현대적인 스님'들 배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표교활동이 부진한 현 상황에서 중앙승가대의 역할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 틀에 짜인 교육의 범주에서 맨들지 않고 보다 역동적인 교육을 통해 종단의 미래를 담보해 줄 인재물 기르는 일은 급하고도 급한 일이다. 큰 뜻을 가지고 발족되는 중앙승가대 후원회에 모든 불자들이 동참해 불교의 미래를 위한 촛불 하나씩을 밝혀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35. 골 세리머니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대표는 공인, 공개적 종교행위는 부적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는 인종·종교·정치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구촌을 함께 묶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으로 경제효과뿐 아니라 국민적 혼연일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골이 터지거나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순간 그 환희감을 반감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 세리머니'나 '하나님 운운'하는 멘트들이다. 인종과 종교간 긴장을 풀어보자는 화합과 축제의 마당에 다시 종교가 끼어들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종교과잉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종교오염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개신교 선수들이 유별난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역도의 장미란 선수나 유도의 이원희 선수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박주영이나 2002년 월드컵 당시 이영표와 송종국 같이 축구를 통해 전도를 꿈꾸는 선수들 역시 기도 세리머니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매 게임마다 동그랗게 모여 기도하던 김영철 감독 하의 여자배구국가대표팀도 개념 없이는 마찬가지였다.

축구장이 종교로 오염되기 시작한 것은 차범

근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골이 터질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비쳐지고 인터뷰 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만 연발하는 차범근 감독을 향해, 도올 김용옥 교수는 당시 10월 3일자 동아일보에서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라 어느 교회팀 감독' 같이 보이는 어이없는 행동을 지적하며 "공인의 공적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행위는 공적 모델의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며 절감하게 타일러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대표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대표일지라도 개인의 종교적 표현은 자유 아니냐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골을 넣을 때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기쁨이 터져 나오거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적 태도를 두고 각박하게 따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더구나 "패한 사람이 팀은 신이 잠시 외면하거나 저주했다 믿어라"며 유치한 논리를 들이대고 싶지도 않다. 기쁜 것은 기쁜 것이다. 다만 공인이란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의 종교적 행위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종교인 스스로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대체로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회적 흐름 때문인지 공식행사나 공공장소에서 공직자의 종교적 표현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공공성 침해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정서적 소외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대표가 공인인 것이다. 공인의 법적 기준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대우를 하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국가대표는 공무원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대국민 봉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점에서 사전적 의미의 '공직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기간만큼은 대표팀은 국가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재원 역시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며, 더구나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선수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정한 연금, 방역면제 등의 혜택까지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대표는 분명히 공인이다.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국가대표는 정치사회지도자·언론방송인·연예인과 함께 국민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공인일 수밖에 없다.

차범근 감독은 기도문제가 불거진 지 수년 뒤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일부분으로 결코 타종교를 의식한 시위행위는 아니었다. TV에 그 모습이 비쳐지면서 오해와 시비가 생겼던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고 타인의 권리나 공인 신분



기도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박주영 축구선수

에 대한 그 어떤 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시위 행위'가 아닌 것이 고맙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공인이라면 당연히 타종교나 국민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절정의 순간에 혼자 자신의 신에게만 감사를 고하는 모습을 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타종교인은 씁쓸하다. 단 몇 초의 짧은 순간이지만, 보고할 일이 있어 기쁨의 절정을 함께 만끽하지 못했으니 잠시 참아달라는 것은 자신의 종교가 국민보다 우선한다는 오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흥명부·김남일·박지성·서기현·이을용 등 불자 선수들이 합장을 하거나 오목투지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 예산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스포츠라는 공적 영역에서 기도꾼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국가대표에게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욕심을 보이지 말아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p>653호 불자 정보</p> <p>▷접수처 TEL 02) 2004-8215 732-1522(화) FAX 02) 737-0696</p>	<p>문화예술포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구로 APT 대단지 ● 5층 280평(법당, 선방, 공양간 등 170평, 세미나실, 철보, 자연염색, 한지공예 등 110평) ● 6층 70평(집무실, 요사채) ●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 (조절가능) ● 시설비 1억(반값이하) <p>011-9814-0278</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 평수: 72평 ● (아파트 44세대대 상가 5층)반양있음 ● 모든시설 최상급, 산사와 같은 포교원 주변 자연경관수려, 교통편리, 주차관리 포교에 유효있는 스님 최상의 조건 ● 가액: 농협융자 3천만원 안고 1억 3천만원 <p>016-9878-1282</p>	<p>도심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부근 (동묘역 앞) ● 평수 30평, 3층건물 2층 ● 법당1, 방2, 보일러 및 주방 시설 완비 ● 현재 포교원으로 사용중이나 일반 집으로도 사용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p>011-310-0361 02)2236-0361</p>	<p>사찰(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함안군 가야면 구원리 74-7외 4건 ● 평수: 2,100평 ● 가액: 2억2천만원(절충가능) ● 포장도로 접합, 토목 석축 완료 ● 중수적 최고의 명당터 <p>011-9837-8668 061)362-9863</p>	<p>사찰(현대식)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행정타운)서울30번 ● 법당, 요사채, 산신각 ● 대지 175평(주차장 별도사용 100평) ● 특징: 포교와 기도장진 도량 복지시설 유치원, 전방종교 교동 편리한 산과 도심이 만나는 위치 (심야전기 보일러실) ● 가액: 도량 담사후나 전화상담요망 <p>016-510-3455</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전 시민회관 근처 ● 평수: 90평(7층 건물 7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주방, 접견실, 요사채 상존함, 108후불, 신종량화, 감로명화 ● 에어컨 3개 등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 보증금 500만원, 월 57만원, 시설비 1,900만원 <p>010-2284-0737</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470평 ● 법당 30평, 산신각 2평, 요사채 30평, 10평 ● 심야전기, 조경이 되어있고 앞에는 계곡 ● 가액: 3억원 <p>016-274-3170</p>	<p>임법당 주택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구포동 구포시장 위 ● 대지: 40평 ● 1층 슬라브 30평(법당 15평) ● 2층 신축법당 허가 있음 ● 8m 도로 주택지 사거리 코너 향후 재개발 예정지 ● 가액: 1억5천5백만원 <p>010-2563-5550</p>	<p>사찰(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남 천안 병천 ● 부지: 780평, 요사채 40평 ● 대웅전 18평, 지장전 20평 ● 공사 70%완성 진행중 ● 가액: 4억원 <p>011-339-1946 011-294-8497</p>	<p>복지추모사업을 위한 "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고령 ●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입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침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2억1천만원 (970만원 융자 안고) <p>017-501-2315</p>	<p>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 달서구 상인동 ● 법당: 65평 ● 특징: 아파트 밀집지역에 최고의 시설 ● 앞산 아래 무궁화 지역이며 전철역에서 5분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장 완비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90만원 ● 시설비 5천2백만원 <p>011-9876-3388</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관악산 낙성대역 5분거리 ● 평수: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p>010-6655-4057</p>	<p>일반주택(임법당)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진주시내에서 의령 방향으로 10분이내 ● 대지: 200평 ● 집 두채(한채 참고 겸함) 방3개: 임법당 1개, 방 2개 ● 가액: 적정금액 양도 <p>017-587-7193</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 후문 ● 복합상가 4층준 4층전체 엘리베이터 있음 ● 건평 70평, 원목장식 최고시설 ● 법당 25평, 큰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 사위장, 도시가스 ● 직접보신후 가격절충 <p>문의 011-577-1234</p>	<p>사찰 안내</p> <p>A. 위치: 대명산 팔공산 대지 80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건평 80평, 심야전기, 에어컨 최고급 시설이 갖추어짐(인공폭포) ● 오시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2억6천만원 <p>B. 위치: 김천시 구성면 진흥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510평 ● 기존건물 3채(전기, 전화가능) ● 가액: 6천7백만원 <p>*교통: 승용차 절까지 진입가능</p> <p>010-8804-8041</p>	<p>임법당 주택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시내중심지역) 광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400평 ● 건물: 한옥(고택)30평 <본채> ● 별채 40평(방8개) ● 도로 앞, 뒤 8M 도로 ● 정원: 100년 이상 수령 7그루, 30여종 나무 ● 가액: 6억원(융자 1억7천) ● 협의 후 절충가능 <p>017-607-2808</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법당 30평(목조), 산신각 10평(목조) ● 남골 200기 시설 (100기 미분양), 요사완비, 지장대불, 사리탑 완비 ● 가액: 2억5천만원 <p>010-9115-6831</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 2리 ● 대지: 232평, 신축건물(3년) 60평 ● 현 식당 운영중이며 심야전기 설치 ● 시설: 식당 큰방 (15평) 주차시설 완비 ● 주변경관수려 강, 산이 어우러져 있음 ● 가액: 3억5천만원 <p>011-803-7448</p>	<p>주택가 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원시 장안구 62평(2층) ● 1층 상가 3개, 방1 월70만원 수입있음, 2층 법당 ● 8차선 도로 10M 인접 ● 주택가 코너지 ● 가액: 4억2천만원 (융자 6200만원 포함) <p>031)257-5991 011-753-5991</p>	<p>부산 대 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액: 13억 ● 부동산 사절 <p>010-9630-0937</p>